

광양만권(하동)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감도



목 차

<p>■ 건설관련 소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두관지사 낙동강사업 현장점검에 나서 ○ 경남도, 우수기대비 전문가 초빙 건설공사 특별점검에 나서 ○ 경남도, 수도권 투자유치 전략 성과 빛나다!!! ○ 하동 경제자유구역청, 갈사만의 꿈 15년만에 실현!!! ○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출범 ○ 경남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 ○ 경남도,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교육 개최 ○ 경남도, 여름철 풍수해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거창 승강기 R&D센터 첫 삽 떴다!!! 	<p>■ 지식정보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두관지사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발벗고 나섰다 ○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제2중동북 이라크에서 새지평 열어 ○ 뇌물제공 건설업체 공사수주 원천 차단 ○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 가입해야 !!! ○ 아파트 관리비, 이웃 단지와 동·평형별 비교 가능 ○ 국제수준의 건축사 자격제도 선진화 본격 시행 ○ 시속 430km 고속열차 개발로 세계4위 고속철도 기술보유국 도약 !!! ○ “올해 피서는 국토해양부 추천 우수해수욕장으로 가볼까?”
	<p>■ 신기술 정보 17</p>
	<p>■ 건설기술심의 현황 18</p>
	<p>■ 계약심사 현황 18</p>
	<p>■ 기술인 나눔 정보 19</p>



건설관련 소식

김두관지사 낙동강사업 현장점검에 나서

- 6월 5일 오후 낙동강사업 현장 항공시찰
- 우수기 대비, 시설물 일제점검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 주문



〈헬기를 타고 낙동강 사업 점검에 나선 김두관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6월 5일(화) 오후 3시부터 낙동강사업 현장 점검을 위한 항공 시찰을 실시했다.

이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제40차 회의(5월 25일 개최)를 열고 정부의 4대 강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시설이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유실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 기피시설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김두관 지사는 헬기를 타고 그동안 보(洑)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비롯하여 황강 합류부 준설토 재퇴적구간, 지류하천 역행침식 구간과 준공 이후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는 친수공간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6월부터 시작되는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수행한 관계관들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낙동강 보 담수에 따른 저지대 영농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경지 지하수 위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저지대 영농피해 우려지역 해소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도민들의 영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낙동강 사업으로 조성한 친수공간에 대하여 홍수기 방문객 대피계획과 유지관리 시 쓰레기 청소 및 홍수에 따른 토사, 뽕 퇴적 제거 등 친수공간 청소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이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 : 생태이천과 낙동강가꾸기담당 (055)211-3923

경남도 우수기대비 전문가 초빙 건설공사 특별점검에 나서

-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사전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장마철 우수기를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건설공사 현장 절·성토 사면, 배수시설 및 구조물 시공구간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자 우수기 특별점검을 건설 분야의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를 초빙하여 오는 6. 11일부터 6. 25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느 해 보다 올 여름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반복된다는 장기에보에 따라 강우로 인한 지반 침하, 구조물 전도,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도내 대형건설공사 중 사업비 100억원이상(하천 60억원)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및 건축물 등 우수기에 취약한 대규모 절·성토, 지하굴착, 흙막이, 가 시설물 및 건물 등 복합공종을 표본 선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등 제반규정, 주요자재의 규격·품질관리(시험실 운영, 각종시험 실시), 책임감리원(공사감독관)에 대한 업무수행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6월 11일 실시한 민간 전문가 초빙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현장 기술자와 공사감독관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또는 타 사업 건설 기술자의 시각을 빌어 잘못된 관행적 현장 관리에 경각심 고취시키고 일상적인 자기매너리즘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에게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금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 사항은 발주청에 시정 및 사후관리토록 조치하고 부실시공과 중대한 위해발생 현상은 부실별점 부과 등 행정 조치 할 것이며, 한편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에 대하여는 연말 도지사 표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회계과 기술심의팀당
(055)211-3553

경남도, 수도권 투자유치 전략 성과 빛나다 !!!

- 16일 투자유치 설명회 수도권 기업 CEO 등 450여명 참석
- 6개 업체와 6,989억원 3,720명 고용 투자협약 체결



<경남도, 함천군, 북보그룹과 투자협약 체결>

경남도는 5월 16일 10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도권기업 CEO 등 잠재투자자가 45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본자동차 부품회사인 구로다전기 등 6개 업체와 6989억 원의 신규 투자를 성사시키고

3,27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내에 투자의향이 있는 수도권 소재기업과 수도권에서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4천 여 개 기업 중 경남에 관심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도내 18개 전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군별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중점 홍보하는 등, 도와 시군이 함께 기업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 기업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홍보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경남의 투자홍보 영상물 상영에 이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또한, 2009년 경남 창녕에 제2공장을 증설하고 최근 시험가동에 들어간 넥센타이어의 성공 사례 발표에 이어, 경남도내에 투자의향이 있는 구로다 전기 등 6개 기업과 7천 억 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경남도와 시군의 전략적인 유치 노력의 결과로, 투자를 확정된 업체 중 일본에 4개의 계열사를 가진 구로다전기(주)의 경우, 국내 사업 파트너인 EK인더스트리, 경남은행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 4000억원을 투자하여 50만㎡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일본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6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

경남 함안군에 본사를 두고 발전용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BHI(주)는 기존 공장 인근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29만㎡ 규모의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700명을 신규로 고용한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CM글로벌은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에 230억 원을 투자하여 1만4800㎡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경남 함안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김스엔지니어링 역시 대합일반산업단지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1만4500㎡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50명을 신규로 고용하게 된다.

부산시에 본사를 두고 후육강관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스틸플라워는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1500억 원을 투자하여 33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공장을 건설하고 300명을 신규로 고용하게 된다.

자동차와 트럭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볼보그룹은 합천군에 179억 원을 투자하여 24만㎡ 규모의 굴삭기 등 건설장비 연구시험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번 투자협약으로 경남도내에는 372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136만㎡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과 공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날 김두관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만들어 질 수 있다”며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들어 가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도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경남에는 교통인프라의 개선과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단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분양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수도권 기업들에게 경남의 주요 산업단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투자설명회의 경남투자 열기를 계속 살려, 다음주 5월 21일부터 일본 잠재 투자가를 초청하여 진주 사봉산업단지를 비롯한 일본기업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며, 6월에는 중국 500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원탁회의에 참가하여 경남 투자를 홍보하고, 또 국내에 투자해 있는 중국 기업협의회 회원업체를 초청하여 경남의 투자환경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 및 EU기업을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지사를 설치한 기업과 국내외 1천 여 개의 주요 타깃기업을 발굴하여 이메일 뉴스레터, 도내 산업분석 보고서 발송 등을 통하여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서울에서 지방이전을 망설이고 있는 수도권 기업을 타깃으로 매년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 자료 : 투자유치과 국내기업담당
(055)211-2823

하동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의 꿈 15년만에 실현!!!

- 5월 7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 체결
-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립 부지조성 공사 착공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일원에 조성되는 광양만권(하동)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이 체결되고 부지조성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갈사만의 꿈이 15년만에 실현되게 되었다.

지난 5월 7일 공동 사업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하동군과 대출자인 (주)국민은행·부국증권 및 시공사인 (주)한신공영이 금융약정과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함에 따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561만㎡중 248만㎡를 우선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4450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수분양자인 (주)대우조선해양은 분양금 1100억원 중 110억원의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약정에 따른 실행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해면부 317만㎡, 육지부 244만㎡ 등 총면적 561만㎡ 규모로,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1조 5970억원이다.

'97년 현대제철의 입지가 무산된 이래, 15년만인 올해 3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게 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부지 17만㎡ 착공을 시작으로, 이번 금융약정으로 총면적 561만㎡ 중 248만㎡의 개발이 시작되면 2014년 말 대우조선해양(주) 분양부지 67만㎡의 공급으로 하동지역 최초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분양금을 납부한 대우조선해양(주)과는 2010년 9월 67만㎡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회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향후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를 생산하는 첨단 조선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에 본사를 둔 강관제조업체인 (주)스틸플라워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1500억원을 투자하여 33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12년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상남도·하동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과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해 두우배후단지, 대송산업단지, 덕천배후단지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역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과 금남면 일원에 광양제철 생산기능과 연관된 조선산업단지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새로운 지역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으로 면적 1227만㎡,

계획인구 1만명, 사업기간은 2003~2020년으로 사업비는 2조 1179억원이다.

▶ 자료 : 경제기업정책과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055)211-2983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출범

- 5월 29일(화) 양산에서 개소식 가저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광역교통서비스 개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합·조정할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5월 29일 양산에서 개소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는 그간 3개 시·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조정,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의 광역교통망 개선이 절실하였으나, 협의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없고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독자적 계획수립으로 인한 실행력 약화 등으로 동남권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의 조직구성은 1본부장, 2팀 체계로 본부장은 4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개방형 교통전문가로 두고 본부장 아래에 광역교통정책팀과 광역교통개선팀을 두며 총13명 정원으로 3개 시·도 파견공무원 7명과 교통전문가(연구원) 6명으로 구성하였다.

초대 본부장은 임기 2년에 부산시에서 먼저 맡고 향후 시·도간 순회하면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광역교통본부가 수행하게 될 사무는 동남권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광역교통과제 발굴 및 연구,

광역교통정책 및 광역버스 노선의 협의·조정,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등 동남권 3개 시·도간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이오영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경남·부산·울산의 공동번영과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작은 걸음이지만 첫 번째 기구인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설립되는 만큼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창원-부산간 시내버스 연장운행 등 시·도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래 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가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자료 : 교통정책과 광역교통담당
(055)211-4483

경남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

- 국고인센티브 2년 총 55억원 확보

경남도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서 2011년 함양군 목현소하천에 이어 올해에도 양산시 원동천과 경기도 양주시 내회암천 등 3개 지역이 공동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11년도 추진한 소하천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도는 우수기관으로,

함안군과 창녕군이 최우수 및 장려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전국 공모전에 출품된 6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치수안정성, 친수경관성, 생태환경성, 지역특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산시 원동천 등 3개 소하천이 우수작으로 괴산군 밤실천 등 5개 소하천이 장려로 선정되어 2013년 5월 방재의 날에 포상이 수여되었다.

경남도는 2012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창원시 등 17개 시·군 43개소 35.4km에 6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 사전예방 등 우수기 이전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서 2011년 함양군 목현천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 되어 2012년도 재정인센티브 국비 30억원을 추가 지원 받았으며, 올해에도 양산시 원동천이 우수 하천으로 선정되어 2013년도 재정인센티브 국비 25억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등 연속하여 하천관리 행정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양산시 원동소하천 정비 전경〉

▶ 자료 : 생태이천과 하천관리담당
(055)211-3944

경남도,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교육 개최

- 현장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 실시

경상남도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의 정착 및 품질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교육」을 5월 4일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체계와 더불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절차 및 승인,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실 규모 등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과 토질, 골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품질시험 및 시험 성적서의 이해, 건설공사 안전 점검 요령 그리고 청렴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렴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들밀도, 아스콘 코어채취, 평판재하시험 등을 교육 참석자에게 설명과 함께 시연하여, 이론과 함께 현장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품질 관리 실무교육이 도내 건설 공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식 개혁을 통한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육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련 실무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도내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등 전문지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는 등 건설공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 자료 : 도로안전과 도로품질관리팀당
(055)211-5093

경남도, 여름철 풍수해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제195차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맞아



<창원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 캠페인 전경>

경남도는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맞아 도민 모두가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에서 풍수해 사전예방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등 도내 35여 개소에서 도 및 시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재난안전네트워크와 같은 민간단체 등에서 1천6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4 ~ 5일 시군별로 펼쳐졌다.

특히, 경남도는 5일(화) 창원시, 창원소방서, 경남재난안전네트워크, 창원의용소방대 회원 등 80여 명과 함께 창원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일원에서 태풍, 호우, 강풍 시 안전수칙 등이 기재된 리플릿과 물티슈 4천여 개를 배부하며 도민 스스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줄 것을 알렸다.

이와 함께 창원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시연행사를 실시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급구조방법을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재난방재과 재난추갈담당
O55)211-4515

거창 승강기 R&D센터 첫삽 댔다 !!!

- 세계 승강기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거창 승강기 R&D센터 조감도〉

거창군이 세계 승강기 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

이를 위한 거창승강기 R&D센터를 5월 3일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단지에서 착공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거창승강기 R&D센터는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1만6천529㎡의 면적에 144억 원(국비 92, 지방비 52)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R&D센터는 기업지원동(연면적 2천437㎡), 장비동(연면적 1천665㎡)과 테스트타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게 핵심기술을 제공하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품의 시험 및 평가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강기산업의 고도화 및 육성에 기여한다. 특히 지상높이 100m의 시험타워는 국내 유일의 초고속용 공용시험타워로서 그 동안 일부 대기업만이 고층타워를 보유하며 독점적으로 개발해 오던 초고속기종 시장에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경남도와 거창군은 R&D센터 구축으로 초고속용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의 안전성능시험과 주행품질시험 등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 R&D센터가 완공되면 3월부터 장비구축, 시험 및 기술지원, 검사인증은 물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업무까지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승강기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다.

▶ 자료 : 전략산업과 지식기계담당
O55)211-2655



김두관지사,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5월 3 ~ 4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확보 활동



<김두관지사 기획재정부 방문 사업현황 설명>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5월 3일 내년도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신제윤 제1차관과 김동연 제2차관을 만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장 및 심의관, 예산실을 방문하여 2013년도 국고예산 확대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두관 지사는 내년도 국고예산 지원 대상사업 중 경남도의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등 78건 2조 299억 원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고예산의 확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번에 지원을 건의한 2013년도 경남도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현안사업으로 마산 로봏랜드 조성 828억 원,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건설 730억 원, 김해~부산외곽 간 고속국도건설 등 1조185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600억 원, 지방하천 정비 1천440억 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86억 원,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 80억 원 등 56건에 1조 9천365억 원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50억 원, 풍력부품 클러스터 조성 106억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13억 원, 어업인의 안전조업 보장을 위한 위치발생 구명조끼 보급 13억 원, 화력발전소 폐열활용 수출농산물 재배 287억 원 등 22건에 934억 원이다.

김두관 지사는 5월 4일에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태호 도로정책관, 권오성 도로정책과장, 손종철 간선도로과장 등을 찾아가 면담하고 함양~울산, 88선, 냉정~부산, 부산외곽 등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8건에 1조185억 원과 거제~마산, 한려대교, 양곡~완암, 한림~생림, 대동~매리 등 국도 및 국대도, 국지도 건설사업 41건에 6천918억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김두관 지사의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방문은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선 것으로 올해에도 2013년도 국비를 사상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전 행정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실국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2013년도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하였다.

▶ 자료 :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과
055)211-2373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36% 상승
- 거제시 23.82% 상승 전국 시군구 중 최고, 최고지가 마산합포구 창동 133-1(더페이스샵) 6,950천원/㎡

경남도는 2011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3백8십만8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2년 5월 31일자로 시군별로 결정·공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6.36% (전국 평균 4.47%)가 상승하였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조선경기와 주택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상승률(3.79%)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3백8십만8천여 필지 중 3백4십6만4천 필지(90.97%)가 상승하였고, 1십8만2천 필지(4.78%)가 불변, 1십6만2천 필지(4.2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 상위에는 거제시(23.82%), 남해군(9.57%), 함안군(8.44%), 사천시(8.35%)이며, 상승요인은 거제시의 경우 조선경기와 주택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 동반발전 영향과 낮은 지가 현실화 반영으로 남해군의 경우 신축 골프장 및 바닷가 쪽의 주택이나 펜션 등의 신축에 따른 거래 활성화가 지가상승을 유도하였으며, 함안군의 경우 39사단 이전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4대강살리기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사천시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및 골프장 조성, 용도지역 변경 등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승률이 적은 하위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2.08%), 창원시 진해구(2.42%), 창원시 마산합포구(3.19%), 합천군(3.3%)으로 마산회원구는 비도시지역(내서읍)의 토지 활용성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 증가로 진해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 신항만건설에 따른 배후부지조성사업 등의 영향으로 마산합포구는 로봇랜드, 진북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근 면지역의 관리지역 내 토지의 활용성 증가로 합천군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영에 따른 상승 등으로 낮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지가(㎡당)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133-1번지(더페이스샵)가 695만 원으로 작년에 이어 최고 지가를 기록하였으나, 구 도심지의 지가 현실화를 반영 올해도 55만 원이 하락하였으며, 최저지가는 통영시 옥지면 서산리 산2번지 임야로 작년과 같은 9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59,329필지)와 함께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가정보자료로 제공되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경남도는 올해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와 개별방문을 통해 지가를 열람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는 우편 통지는 하지 않고 경상남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와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음을 이번 개별 통지문을 통하여 사전 공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 31. ~ 6. 29.까지 토지소재지 시군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단위 : 천필지)

구분	총계	상승		보합(불변)		하락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10년	3,789	1,449	38.20%	1,819	48.40%	491	12.90%
'11년	3,838	2,281	59.43%	1,353	35.25%	204	5.32%
'12년	3,808	3,464	90.97%	182	4.78%	162	4.25%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변동 현황>

▶ 자료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55)211-4573

제2중동봉 이라크에서 새지평 열어

- 이라크 주택 10만호 건설 계약식 및 기공식 개최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제2의 중동봉이 이라크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5.30일 이라크에서 한화건설이 수주한 77.5억불(약9조원) 규모의 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의 계약식 및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계약식은 이라크 총리공관에서 발주처인 이라크 투자위원회와 한화건설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기공식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국토해양부 한만희 제1차관, 김현명 주이라크 한국대사, 말리키 이라크 총리, 알아라지 국가투자위원장, 알데라지 이라크 건설주택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사업 현장인 비스마야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서명식과 기공식행사는 이라크방송을 통해 직접 생중계되는 등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은 바그다드 남쪽 약 20km에 위치한 Bismaya 지역 1,830ha에 이르는 부지에 단지개발, 주택공사, 편의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는 77.5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로는 UAE 원전(186억불)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7년이며 전액 이라크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전쟁이후 이라크 재건을 위해 총 697억불에 이르는 재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우리기업은 이라크 재건사업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번 한화의 주택 10만호 사업 수주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측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라크측 주택
건설부 장관의 만남 이후 조성된 양국간 협
력분위기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통
해 이어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만희 국토부 제1차관은 계약식 및 기공
식에 앞서 이라크 총리, 이라크 투자위원
회 위원장, 건설주택부 차관 등을 차례로
면담하여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기
업의 참여의지를 전달하고 이라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한차관은 “한화의 주택 10만호 수주는 이
라크 재건사업의 첫삽을 뜬 것으로 앞으로
우리기업이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 등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인건설지원과
02)2110-8362

뇌물제공 건설업체 공사수주 원천 차단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
물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
여, 뇌물제공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대
폭 감점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
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입찰참
가 제한(국가계약법), 영업정지(건설업기
본법)등의 처분이 가능하나,

건설업체는 해당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등으로 확
정 판결전까지 사실상 별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 국토부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PQ심사(100억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시 감점 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관
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LH, 도공, 수공,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PQ기준을
개선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비리차단을
위해서 해당업체는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
가 어렵도록 턴키 심사평가시 감점(10점)
을 부여한 개선안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설계용역도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뇌물
공여 업체는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
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뇌물제공 이외에도 담합과 같이 비
리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시 불이익
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설계,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
합등과 관련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 붙
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47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는 가입해야 !!!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5월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 10만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최고 50만원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제도를 이륜차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버스 및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하여 배포·홍보중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원, 9만 4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6429

아파트 관리비, 이웃 단지와 동·평형별 비교 가능

- 12월 'K-apt.net' 개편·운용...관리비
투명성 제고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동·평형별로 공개됨에 따라, 타 아파트와 관리비 비교를 통해 아파트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입찰시스템이 구축되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투명해지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어 아파트 관리수준도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범위 확대,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 '09.9월 구축)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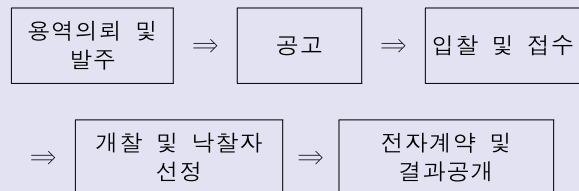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비를 매월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아파트 단지별로만 관리비가 공개되고 있고, 관리비 항목도 중분류(28개 항목)로 타 아파트와 상세한 관리비 비교·검색이 제약되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관리비를 단지별 외에 동별, 평형별로도 공개하고 공개항목도 세분류(48개 항목)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비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입찰담합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 입찰 전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 입찰절차도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k-apt.net을 통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아파트 입주민은 연 1회 k-apt.net에 접속, 아파트 관리수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해당 단지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지역별 평균 점수와 비교 가능하게 된다.

k-apt.net은 금년 9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개월 간의 시범운용을 거친 후 금년 12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5

국제수준의 건축사 자격제도 선진화 본격 시행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11. 5. 30. 공포, '12. 5. 3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① 5년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②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③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④ 자격등록을 한 후 ⑤ 계속교육을 통해 ⑥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갈 것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실무수련기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예외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갱신등록의 기간 및 절차
 -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장관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건축사 실무교육
 -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사도의 경우는 사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추므로써 향후 국제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10

시속 430km, 고속열차 개발로 세계4위 고속철도 기술보유국 도약 !!!

- 국토부 시제차량 출고시 개최

고속철도가 더 빨라진다. 전국을 1시간 30분대 도시로 묶을 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해양부는 5월 16일(수) 경남 창원중앙역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제작한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를 최초로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575km/h), 중국(486km/h), 일본(443km/h)에 이어 세계 4번째 고속철도 기술보유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HEMU-430X는 동력분산식 차량의 영어 약자(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430km/h eXperiment)이며,

바다의 안개 해무(바다 海 안개 霧)처럼 미래를 기다리는 상서로운 의미와 빠르게 달린다는 해무(빠를 蠶, 달릴 驚)의 의미를 갖고 있다.

차세대고속열차는 국토해양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총 931억원을 투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현대로템(주)이 차량 제작을 맡는 등 50여개 기관이 참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는 동력분산형 추진시스템, 공력 해석에 따른 설계, 차량 경량화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다. HEMU-430X는 부산고속철도차량기지에 시운전단(단장 철도연 김석원 박사, 총46명)을 구성하여 2012년 하반기 최고 시속 430km 시험을 거쳐, 향후 2015년까지 10만km 주행시험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430km/h의 차세대 고속열차는 앞으로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라고 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고속철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기술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총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박사는 "이번 430km/h 차세대 고속열차의 개발로 약 83.7%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고속열차 시제 차량 전경>

▶ 자료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54

“올해 피서는 국토해양부 추천 우수해수욕장으로 가볼까?”

국토해양부는 전국 358개 해수욕장 중 2011년도 우수해수욕장 3곳과 시설개선 지원 해수욕장 6곳을 선정*·발표하였다.

이번 우수·시설개선 지원 해수욕장은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수욕장 운영, 수질·경관, 안전관리, 요금 공표 등 안내판 설치, 이용객 현황 등 해당 해수욕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도의 1차 평가와 국토해양부의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우수 해수욕장은 울진군 망양, 태안군 만리포, 신안군 우전해수욕장 3곳이며, 시설개선 지원 해수욕장은 **사천시 남일대**, 부안군 모항, 고성군 봉수대, 경주시 오류, 고흥군 발포, 제주서귀포시 표선해비치해수욕장 6곳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02)2110-8494



ㄷ형상으로 가공된 후판을 이용한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이원호
	한라건설(주) 외 5개사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55호
- 기술분야 : 토목 시공
- 내용요약

기둥 주각부에 전단보강을 위하여 ㄷ형상으로 가공한 후판을 현장에서 접합·설치함으로써 2방향 전단강도를 증가시키고 기초판 두께를 절감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ㄷ형상으로 가공한 후판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시험 방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지 텍크
	삼부토건(주)
	(주)서영엔지니어링
	최용규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56호
- 기술분야 : 토목 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으로 1,000kgf/cm² 이상의 고유압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말뚝의 한정된 단면에 고유압 액의 배치를 원활하게 하여 시험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압액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며, 설치 및 해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상하판 변위 및 유압액의 팽창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팽창변위계, 복동식 고유압 장치의 상호간을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동조식 배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유압 장치,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팽창변위계 그리고 상호 연결된 동조배관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재하시험 후 실린더를 복귀하고 빈 공간에 그라우팅이 가능한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2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계획

- 건 명 :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연사~오비) 확·포장공사
- 심의일자 : 2012. 06. 29 (금)
- 요 청 자 : 거제시장,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실시설계 (적정성)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 확·포장공사	· 위 치 : 거제시 연초면 연사·오비리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2.56km, B=20m · 사 업 비 : 357억원(공사비 302, 보상비 55)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거제시

▶회계과 (055)211-3554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2년 5월 현재 (누계)	계	376	390,669	364,430	26,238		
	공사	토목	163	253,926	234,462	19,464	
		건축	33	52,487	49,899	2,588	
		기타	24	38,609	36,612	1,997	
	용역	63	39,706	37,760	1,946		
	물품	93	5,941	5,697	243		

▶회계과 (055)211-3543



기술사 시험 일정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96회	2012.01.13 - 2012.01.19	2012.02.12	2012.03.23	2012.03.26 - 2012.04.04	2012.03.26 - 2012.03.29	2012.04.28 - 2012.05.10	2012.05.18
2012년/ 제97회	2012.04.20 - 2012.04.26	2012.05.13	2012.06.29	2012.07.02 - 2012.07.05	2012.07.02 - 2012.07.05	2012.07.28 - 2012.08.09	2012.08.17
2012년/ 제98회	2012.07.20 - 2012.07.26	2012.08.12	2012.09.21	2012.09.24 - 2012.09.27	2012.09.24 - 2012.09.27	2012.10.27 - 2012.11.08	2012.11.16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1회	2012.02.03 - 2012.02.09	2012.03.04	2012.03.16	2012.03.19 - 2012.03.28	2012.03.19 - 2012.03.22	2012.04.21 - 2012.05.04	2012.06.01
2012년/ 제2회	2012.04.27 - 2012.05.03	2012.05.20	2012.06.08	2012.06.11 - 2012.06.14	2012.06.11 - 2012.06.14	2012.07.07 - 2012.07.20	2012.08.17
2012년/ 제3회	2012.08.03 - 2012.08.09	2012.08.26	2012.09.07	2012.09.10 - 2012.09.13	2012.09.10 - 2012.09.13	2012.10.13 - 2012.10.26	2012.11.23
2012년/ 제4회	2012.08.24 - 2012.08.30	2012.09.15	2012.10.05	2012.10.08 - 2012.10.11	2012.10.08 - 2012.10.11	2012.11.03 - 2012.11.16	2012.12.14

콘크리트 발열축진양생 기술 설명회

1. 일시 : 2012. 6. 18 (월) 15:00 ~ 16:00
2.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3. 주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마이 크로파를 이용한 발열시스템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생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콘크리트 급속시공 기술 설명
4. 주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5.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마케팅실
윤장호 (031-460-5214)

※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ca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에게 이름표를!」 호칭 공모전

1. 응모기간 : '12. 5.29(화)~9.28(금)
2.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팀
공모전 담당자(02-519-2103)
- 주소 : (135-7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2층
- 이메일 : moonsh@cwma.or.kr
3. 응모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응모신청서는 작품 1매 당 작성·제출 (건설현장 근로여부를 꼭 기재할 것)
※ 응모신청서는 공제회 홈페이지 (www.cwma.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cwm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52~6

FAX : (055)211-3519

e-mail : moonsoo70@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